기초부터배우는 성경 공부

제4과 성경의 저자와 기자

[벧후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는 1과에서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공부했다. 또 2과에서는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한 것도 살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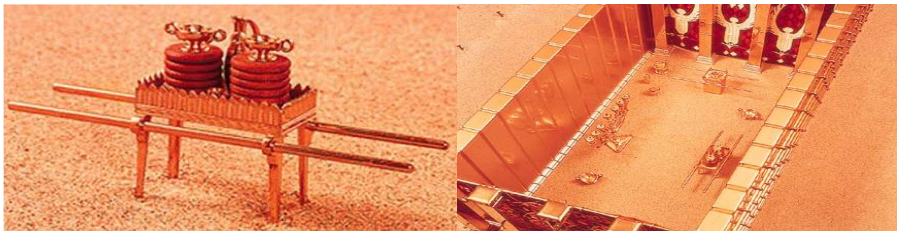
1. 성경의 저자

성경 각 책이 기록자의 이름이나, 내용에 나오는 주요 인물의 이름이나, 그 글을 받는 사람이나 교회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부했다. 그런데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사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시고 그의 신 곧 성령께서 모으셨다. 성령이 모았다는 말은 편집하셨다는 뜻이다. 모은다는 말은 "카바츠(קָבַץ)"인데,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소집하다 등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것을 이렇게 모아서 66권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 전서(全書)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계시하는 말씀이다.

지난 과에서 외경에 대한 것을 잠깐 살폈는데, 성경 자체 안에 성경전서가 66권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성소의 제물과 관계하여 암시된 것이다. 성소에는 떡 상이 있고 거기 12덩이의 떡을 6개씩 도 줄로 쌓아놓게 하였다.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덩이씩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쌓는 방식에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의 가슴에 다는 흉패이다. 여기에는 보석 12종류를 한 개씩 12개를 달았는데, 4개씩 3줄로 달게 했다. 그런데 굳이 떡 상의 떡은 6개씩 두 줄로 쌓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이 66권으로 편집될 것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와 영감을 주시고 이것들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으며, 그것을 66권의 책으로 모으셨다. 그것들은 빠진 것이 없이 다 짝이 있다고 계시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서로 해석하는 짝

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연구에 대하여 공부할 때 살펴볼 것이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록은 사람을 시켜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다.

[벧후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신27: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신31:24-26]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렘36:1,2,4]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사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4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렘36:27,28,32]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8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32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계1: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1:19]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명하시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명하셨다. 그러므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2. 성경 기자들

성경의 첫 기록자는 모세이다. 모세 이후 배경과 계층과 교육정도, 직업, 신분 등이 각각 다른 37명 이상의 영감 받은 사람들이 기자가 되었다. 마지막 책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다. 구약성경의 기자가 29명 이상, 신약성경 기자는 8명이다. 일반적으로 약 40명의 기자가 기록했다고 말한다.

이들의 교육 정도가 어떠하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와 영감으로 주신 것을 자기의 정도에 따라 기록하였다. 그래서 문장이 유려한 것도 있고, 조악(粗惡)한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별의 내용은 우열이 없다.

3. 성경의 영감

성경은 영감이 이중성이 있음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록자를 영감하신 것이다.

[벧후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페로(φέρω)”의 분사 현재수동형인 “페로메노이(φερόμενοι)”인데 “운반하다, 앞으로 가져가다, 몰아가다.” 등의 뜻이 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낸 것”이라는 말도 역시 “페로”이다. 여기서는 “에네크데(ἠνέχθη)”인데 “페로”의 과거 수동형이다. 운반하는 것은 짊어지고 나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페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 보여주시고 일러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둘째는 말씀 자체에 영감하셨다.

[딤후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에도 영감이 되었다는 뜻이다. 영감을 받은 사람이 영감을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떼오프뉴스토스(θεόπνευστος)”인데 이것은 “떼오스(θεός)”와 “프네오(πνέω)”의 합성어이다. “떼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프네오”는 숨 쉰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숨을 쉬신”이라는 뜻이 된다.

이것은 창세기 2:7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는 말씀과 흡사하다.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말씀에 영감 곧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산 말씀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행5: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요5:24,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반드시 이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성경의 기록은 책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